

## James Joyce: 심미적 질서의 창조\*

임 재 오

Joyce의 소설이 창출하는 예술미학의 두드러진 특징은 그것의 심미적 구조를 결정짓는, 융합과 해소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변증적 리듬 및 조화와 통일의 시학이라고 할 수 있다. Joyce는 이와 같은 심미적 질서의 창조를 위해 다양한 소설기법과 수사적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내용적으로 파편화될 속성을 지닌 그의 작품들에 형식적으로 유기적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Joyce에게 있어서 예술작품이, 『스티븐 히어로』(Stephen Hero)에서 Stephen의 입을 빌려 정의하는 대로, ‘부분들의 관계가 절묘한 조직화된 합성구조’(『스티븐 히어로』 218)가 됨은 Joyce의 기법, 즉 형식에 대한 관심과 미학이론, 특히 이피파니 이론과의 연관성에 대한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Joyce의 소설기법과 수사적 전략은 그의 작품에서 전체성(wholeness)과 조화(harmony) 및 광휘(radiance)라는 미학적 형식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다름아니다. 그러나 Joyce는 형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용을 결코 훼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Joyce가 기법과 형식의 문제에 관심은 집중하는 과정은 내용에 대한 파괴적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내적 통일성을 달성하기 위한 창조적 행위인 것이다. Joyce의 소설미학은 형식이 내용을 보강함으로써 양자의 합일을 구현하는 것을 그것의 이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내용과 형식이 조화있게 융화된 심미적 질서를 창조하고자 Joyce가 사용하는 기법과 전략에는 반복의 기법, 생략의 기법, 병치 또는 삽입의 기법 등을 비롯하여 암시적 평행과 대응 및 인용과 인용을 포괄하는 상호 텍스트성에 의한 전략, 언어의 유희와 패러디의 기법, 열린 결말의 제시, 그리고

---

\* 이 논문은 1995년 6월 <한국 제임스 조이스 학회 창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것을 보완하여 정리한 것이다.

신화적 방법 등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상과 같은 기법과 전략을 통해 Joyce가 지향하는 모더니즘적 형식주의에 근거한 소설미학이 그의 주요 작품들인 「더블린 사람들」(*Dubliners*),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율리시즈」(*Ulysses*) 등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창출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 I

Joyce는 「더블린 사람들」에서 15 편의 단편들을 관류하고 있는 주제인 마비사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치밀한 이피퍼니 패턴을 활용한다.

「더블린 사람들」의 구조적 미학은 이러한 마비의 주제의 반복과 이피퍼니의 변증적 반복에 의해 구조화되는 유기적 통일성을 통해 창출되는 것이다. 이 작품의 서문이라 할 수 있는 「자매들」(*"The Sisters"*)의 소년 Flynn 신부의 죽음을 통해 깨닫는 최초의 이피퍼니는 점층적으로 역동적 활력을 지니면서 마비의 주제와 연결됨으로써 작품 전체를 구조적으로 통합하고, 종결부인 「죽은 사람들」(*"The Dead"*)의 Gabriel Conroy가 자아인식을 통해 깨닫는 최종적인 이피퍼니에 이르러 마침내 그 본질적인 미학적 특성을 발현하는 과정이 그것을 입증한다. Joyce가 「더블린 사람들」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기법들도 바로 이와 같은 미학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문학적 전략에 다름아니다.

「자매들」의 서두부분에는 「더블린 사람들」의 소설미학을 위한 Joyce의 치밀한 글쓰기의 기법과 서술전략을 읽을 수 있는 표현들이 “주도면밀한 천박한 문체”(*Letters*, I 134)에 의해 집약되어 나타난다.

There was no hope for him this time: it was the third stroke. Night after night I had passed the house (it was vacation time) and studied the lighted square of window: and night after night I had found it lighted in the same way, faintly and evenly. If he was dead, I thought, I would see the

reflection of candles on the darkened blind for I knew that two candles must be set at the head of a corpse. He had often said to me. *I am not long for this world*, and I had thought his words idle. Now I knew they were true. Every night as I gazed up at the window I said softly to myself the word *paralysis*. It had always sounded stangely in my ears, like the *gnomon* in the Euclid and the word *simony*, in the Catechism: But now it sounded to me, like the name of some maleficent and sinful being. It filled me with fear, and yet I longed to be nearer to it and to look upon its deadly work. (『더블린 사람들』 9)

Joyce는 『더블린 사람들』 전체의 주제인 ‘마비’ (*paralysis*)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그것과 연관된 이미지들인 ‘경절형’ (*gnomon*)과 ‘성직매매’ (*simony*)를 첫단편의 첫구절에 반복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신부의 정신적·종교적 마비는 물론 더블린의 삶을 지배하는 불완전하고 파괴적인 마비의 실체를 간결하게 암시하고 있다. 더블린의 이러한 죽음 같은 삶을 암시하는 이미지들은 이 단어들 이외에도 ‘faintly,’ ‘evenly,’ ‘dead,’ ‘idle,’ ‘softly,’ ‘maleficent,’ ‘sinful,’ ‘fear,’ ‘deadly’ 등을 통해서 거듭 발견할 수 있어 마비의 주제를 한층 보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더블린 사람들』에는 이와 같은 단어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를 지닌 단어들이 반복됨으로써 파편화될 15 편의 단편들에 내적인 통일성을 제공하고 있다.

『자매들』의 서두부분에서 예시된 이 반복의 기법, 또는 Wilhelm Füger가 말하는 어구교차법은 『더블린 사람들』의 마비의 수사학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다. 더블린의 다양한 마비상태를 반영하는 단어, 어구, 문장, 구절 등이 각 단편의 분리된 경계선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상호 텍스트적 반복을 거듭함으로써, 이 단편집이 서로 열려 있는 하나의 책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블린 사람들』에서 어구교차법의 대표적인 사례는 ‘passion’과 ‘pass’라는 두 단어의 반복에서 찾아 볼 수 있다. ‘passion’이라는 단어의 반복은 이

소설에서의 주제의 반복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다. 『더블린 사람들』의 작중 인물들의 운명은 전반적으로 그들의 정열 (passion)의 결핍이나 상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Füger 88). 단순한 성적 관심에 머물러 Mangan의 누이에 대한 정열을 진정한 사랑의 인식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는 「애러비」 ("Araby")의 소년이 그렇고, 뒤이어 살펴 볼 「죽은 사람들」의 Gabriel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참혹한 사건」 ("A Painful Case")의 James Duffy 역시 정열의 부재로 인해 그에게 '정열적으로' (『더블린 사람들』 111) 육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Mrs Sinico의 사랑을 거부하고 자신의 운명을 극복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pass'라는 단어의 반복은 「이블린」 ("Eveline")에서 가장 두드러지는데, 그것은 주인공 Eveline이 바다가 상징하는 자유를 향한 항해를 포기하고 Frank와의 사랑이 아닌 가정의 의무를 선택함으로써 더블린의 마비된 현실에 안주하는, 이 단편의 주제를 보강시키는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죽은 사람들」에서도 'pass'라는 단어는 「이블린」에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삶으로 가는 통로의 의미로 활용이 되어 이 작품의 구심성을 높인다. 「참혹한 사건」에서 그것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여 Duffy의 정신적 마비의 실체를 드러내는 데 기여한다. Mrs Sinico와의 친교가 실패로 끝난 후 자아인식에 도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 (『더블린 사람들』 117) 과거의 삶의 현실에 종속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생략의 기법 또한 『더블린 사람들』의 마비의 주제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그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Joyce의 수사적 전략의 하나이다. 이 기법은 전술한 바와 같이 다의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남김으로써 독자에게 이 소설의 심미적 질서의 창조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기도 한다. 바로 가면을 쓰고 있는 언어를 구성하는 특징들 중의 하나인 생략의 기법은 「자매들」에서 되풀이 되는데, 특히 이 단편을 결말짓는 Eliza의 부정적 이피퍼니의 순간에 활용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소년의 이피퍼니를 완성하게 된다.

Eliza resumed:

— Wide-awake and laughing-like to himself ... So then, of course, when they saw that, that made them think that there was something gone wrong with him ... (『더블린 사람들』 18)

「자매들」의 소년은 더블린의 마비의 실체를 그대로 체험하고 있는 노년층과 중년층, 즉 Eliza를 비롯한 Nannie, Old cotter 및 숙모와 숙부 등이 나누는, 생략과 에두른 표현에 의한 대화로 인해 신부의 죽음을 파악하는데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신부의 죽은 모습을 묘사하는 Eliza의 대화 중 생략된 부분은 오히려 그의 주위에 가득한 마비의 실상을 소년이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생략의 기법은 「진흙」(“Clay”)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활용됨으로써 주인공인 Maria의 정신적 마비의 정체를 밝히는 데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이 생략의 기법은 이 단편의 표제인 ‘진흙’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작품내에는 결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먼저 확인할 수가 있다. 이 단어의 이미지는 Maria의 정신상태를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에 다름아닌 것인데,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의식속에 침투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Maria는 자신의 정신적 불모성을 스스로 드러내기를 무의식적으로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Joyce가 「진흙」에서 생략의 기법을 가장 주도면밀하게 이용하고 있는 부분은 이 단편의 최종적인 이피퍼니를 유발하는, Maria의 <내 살기를 꿈꾸었네> (*I Dreamt that I Dwelt*)라는 노래이다. 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Maria는 ‘예언게임’에서 죽음을 상징하는 ‘부드럽고 질척한 것’, 즉 ‘진흙’과 ‘기도서’를 반복해서 선택함으로써, 그녀가 타자들의 강요에 의해 수동적인 죽음 같은 삶을 살고 있음을 드러낸 바 있다. 여기에서도 1 절의 반복과 2 절의 생략에 의해 그녀의 진정한 욕구인 결혼하고 싶은 심정을 무의식적으로 숨김으로써, 자족적이 아닌 비천한 자신의 삶의 모습을 오히려 더욱 효과적으로 암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죽은 사람들」은 「더블린 사람들」의 종결부로서 지금까지 살펴본 각 단편의 작중 인물들의 공통된 운명이 Gabriel의 이피퍼니를 통해 최종적으

로 현시됨은 물론, 그동안 사용된 기법과 전략이 다시 반복되어 이 단편집 전체의 구조적 통합을 이룩하고 있다. 특히 Gabriel의 도덕적 통합을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결말부분의 한 문장은 어구교차법에 의한 기법과 주제의 반복을 통해 『더블린 사람들』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한 Joyce의 경제적인 글쓰기의 전략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다.

Better pass boldly into that other world, in their full glory of some passion, than fade and wither dismally with age. (『더블린 사람들』 223)

이 문장에서 『더블린 사람들』의 마비의 수사학에 관련되어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pass’와 ‘passion’이라는 단어의 반복이다. ‘passion’이라는 단어는 「애러비」나 「참혹한 사건」 등의 경우처럼 「죽은 사람들」에서도 주인공의 마비상을 부각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Gabriel도 ‘정열’의 부재로 인해 자신의 운명을 타개할 가능성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저를 거듭하던 Gretta를 향한 자신의 정열이 결국 Furey의 존재 때문에 실패로 돌아 가자 자신을 ‘자기 자신의 광대 같은 욕정을 이상화하는 선의의 감상주의자’로 생각하면서, “그 자신의 이마 위에서 불타는 수치를 아내가 보지 못하도록 본능적으로 등을 한층 불빛쪽으로 돌릴 뿐이다” (『더블린 사람들』 220). 또한 전술한 인용문의 ‘pass’라는 동사도 「죽은 사람들」의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활용이 된다. 이 동사는 여기에서도 「이블린」에서처럼 새로운 삶으로 가는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Gabriel이 더 나은 세계를 향한 통로를 열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Eveline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Gabriel의 통찰은 Duffy의 그것처럼 때가 너무 늦은 것일 뿐만 아니라, ‘저 다른 세계’가 사자(死者)들의 세계를 상징한다면 그것은 실질적인 대안이 아닌 가설적인 대안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Gabriel이 들어가고자 하는 세계는 「자매들」의 늙은 신부가 가버린 ‘더 좋은 세상’ (『더블린 사람들』 15)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Gabriel의 통찰은 역설적으로 더 나은 대안을 포용할 수 없는 『더블린 사람들』의 작중인물들의 운명을

기술하는 것이다. 그들은 모두 ‘늪에서 시들어 쓸쓸히 사라질’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Gabriel도 비록 이러한 운명을 피하길 희망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초래한 더블린의 환경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Joyce는 이처럼 어구교차법의 서술전략과 적합한 이미지의 활용에 의해 「죽은 사람들」 뿐만이 아닌 「더블린 사람들」 전체의 통합을 달성하는 동시에 형식과 내용, 즉 기법과 주제의 합일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종속되어 있는 마비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Gabriel의 진단과 처방은 Joyce의 정교한 예술적 전략을 통해 「더블린 사람들」 전체를 관통하는 작중 인물들의 부정적 실체를 오히려 더욱 드러나게 하기 때문이다. 특히 Gabriel의 예술가적 자기인식은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Stephen의 예술가적 자아형성과정을 향해 열림으로써, 심미적 질서의 창조를 지향하는, Joyce의 새로운 글쓰기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 II

「젊은 예술가의 초상」은 Joyce의 예술적 자의식이 「더블린 사람들」보다 더욱 짙게 반영된 작품이다. 이 소설의 미학적 형식의 틀은 작가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Stephen의 소외의식이 더블린의 마비된 현실과 충돌하면서 갈등과 해소를 반복하는 변증법적 과정에 의해 짜여진다. Stephen이 예술적 자율성을 위해 추구하는 소외는 그가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종장인 제 5장에서 Davin에게 천명하는 것처럼 ‘국가’, ‘언어’, ‘종교’로부터의 소외는 물론이고, 더블린의 모든 환경으로부터의 소외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을 관통하는 Stephen의 소외의식은 Joyce에게 있어서 미학적 모더니즘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자 근거가 되는 것이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각 장의 결말부분에 제시되는 이피퍼니의 순간들도 이와 같은 소외의식의 변증법적 과정의 절정을 현시함으로써, 예술가로서의 소명을 추구하는 Stephen의 자의식을 드러내고 삽화적 속성을 지닌 작품에 구조적 통일성을 제공게 된다.

Joyce는 치밀한 전경화 (foregrounding) 기법에 의해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서곡적인, 제 1 장의 서두부분에서 이 작품의 주제들뿐만 아니라 그것의 구조적 틀을 마련하는, 이미지와 상징의 반복, 어구교차법에 의한 단어와 어구 및 문장의 반복, 기억과 대응 등의 기법들과 상호 텍스트적 인유를 비롯한 예술적 전략을 미리 예시하고 있다. 이 서두부분의 첫구절부터 예술가로서의 Stephen의 신분탐색의 주제를 상징하는 단어와 예술가로서의 감각에 대한 그의 민감성을 암시하는 문장이 그의 인식의 성숙단계와 일치하는 유아기의 문체로 기술된다. 그 다음 구절은 특히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소외의 주제와 관련하여 크리스마스 만찬장면과 대응을 이루어 Stephen이 벗어나야 될 가족, 국가, 종교 등의 환경의 그물을 암시적으로 드러내는 Joyce의 서술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서두부분의 마지막 구절에는 이 소설의 지배적인 이미지인 새의 상징, 어구의 반복, 이피퍼니, 그리고 극적 형식 등이 집약적으로 제시된다.

His mother said:

— O, Stephen will apologise.

Dante said:

— O, if not, the eagles will come and pull out his eyes.

*Pull out his eyes,*

*Apologise,*

*Apologise,*

*Pull out his eyes,*

*Apologise,*

*Pull out his eyes,*

*Pull out his eyes,*

*Apologise.* ( 「젊은 예술가의 초상」 8)

‘독수리들’은 앞으로 반복될 새의 이미지가 상징하는 출발이나 비상의 상징이 아닌 공포의 상징이고, 그 공포는 “잘못을 벌어요”와 “눈알을 뺄거야”라



는 어구의 거듭되는 반복을 통해 배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공포를 느끼는 Stephen의 이피퍼니는 그가 그것을 극복하고 예술가적 비상을 시도할 것임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마지막 구절은 비개성적 언어를 차용한 극적 형식을 취하고 있어 Joyce가 지향해야 할 예술형식이 극적 형식임을 예시하고 있다. 그것은 이 소설의 제 5 장이 극적 형식으로 기술됨으로써 입증된다. 결론적으로 서두부분에서 제시된 이상과 같은 기법들과 전략 등은 상호작용을 통해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젊은 예술가의 초상』 전체의 문맥 속에 마치 모자이크처럼 반복적으로 유지되고 발전됨으로써, 소외의 주제와 융합된, 이 작품의 심미적 질서를 창조하게 되는 것이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각 장은 Hugh Kenner의 지적대로 서로 적대적인 갈등으로 시작하여 점차 감정적인 통합을 지향하게 되고 결국 승리의 종합으로 끝나는 동일한 행동의 패턴을 되풀이한다 (46). 이 소설의 이와 같은 변증법적 과정의 반복은 Stephen이 자신의 소외를 인식하고 그것의 극복을 지향하여 최종적으로 소외를 해소하는 과정의 반복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Stephen의 소외의 해소는 단순한 해소에 그치지 않고, 그의 예술적 자의식이 성숙해 감에 따라 궁극적으로 자신의 미학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서 소외 자체를 추구하는 것으로 변모한다. Stephen의 이러한 소외의식의 변모과정은 다양한 언어와 메타포에 의해 구축되는 문체의 그것과 일치한다. Joyce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문체의 발전을 Stephen의 발전해 가는 의식과 밀접하게 결합시켜 자신의 문체가 Stephen의 의식으로부터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모사적 방법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Wright 32).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주요한 이피퍼니의 순간들은 각 장의 결말부분에서 되풀이되는 변증법적 과정의 절정을 표현하면서 소외를 지향하는 Stephen의 운명을 드러냄으로써, 5 개의 장으로 구성된 작품 전체의 조화와 통일성을 구현하는 데 핵심적인 기여를 한다. 예를 들어 제 4 장의 결말부분에 나타나는 해변에서의 소녀에 대한 이피퍼니는 Stephen의 새로운 의식과 예술가적 운명을 시적 이미지로 충만한 문체로 다

시 일관성있게 현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Joyce가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 구조적 리듬과 전체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정교한 글쓰기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 girl stood before him in midstream, alone and still, gazing out to sea. She seemed like one whom magic had changed into the likeness of a strange and beautiful seabird. Her long slender bare legs were delicate as a crane's and pure save where an emerald trail of seaweed had fashioned itself as a sign upon the flesh. Her thighs, fuller and soft-hued as ivory, were bared almost to the hips where the white fringes of her drawers were like featherings of soft white down. Her slate-blue skirts were kilted boldly about her waist and dovetailed behind her. Her bosom was as a bird's soft and slight, slight and soft as the breast of some dark-plumaged dove. But her long fair hair was girlish: and girlish, and touched with the wonder of mortal beauty, her face. (『젊은 예술가의 초상』 171)

이 소설에서 폭넓게 전개되는 이피퍼니 창조자로서의 예술가의 역할이 위 이피퍼니에서 그 절정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비상을 상징하는 새의 이미지를 통해 깨닫는 Stephen의 지속적인 이피퍼니가 거듭 사용되어 그것의 본질적인 특성을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Dolan 신부와의 갈등 이후에 분수대의 물방울을 통해 깨닫는 Stephen의 승리와 자유의 이피퍼니가 재창조됨으로써 예술가적 이피퍼니로 변용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해변의 이피퍼니에선 바다의 잔 물결 속에 서 있는 소녀의 아름다운 이미지가 가장 두드러진다. 그녀는 ‘이상하고 아름다운 바닷새’에 비유된다. 바닷새의 이미지 이외에도 ‘학’과 ‘비둘기’ 등의 새의 아름다운 이미지가 거듭해서 제시된다.

이상과 같은 해변에서의 이피퍼니는 Stephen의 과거의 경험들이 예술형태를 취한 이피퍼니를 통해 재음미되고 변형되어 나타나는 그의 삶의 방향

에 관한 정신적 평가라고 할 수 있다 (Bowen 111). 따라서 성모의 천상의 미로부터 바닷가 소녀의 지상의 미로 Stephen의 자아추구의 대상이 변모하는 것은 자신의 소명이 성직자의 길이 아닌 예술가의 길임을 Stephen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Joyce는 이처럼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해변에서의 웅축적이면서도 종합적인 하나의 이피파니에 의해 이 소설 전체에 변증적 리듬으로 나타나는 이피파니의 순간들을 통합시킴으로써, 이 작품에 조화와 통일성의 미학을 제공하는 구조적 패턴을 마련하고 있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제 5장에서 더블린의 ‘죽은 언어의 더미’ (「젊은 예술가의 초상」 179) 사이를 걸으면서 느끼던 언어에 대한 Stephen의 소외의식은 Lynch와의 대화를 통해 미학이론을 제시함으로써 객관화 과정을 거치고 그의 심미적 사고와 언어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받게 된다. Joyce는 이 미학이론을 작품에 직접 적용함으로써 그것의 이론적 성숙을 이루기도 한다. Thomas Aquinas의 신학적 원리를 변용한 예술론과 조화와 통일성을 보여주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미학적 형식은 각자 서로를 조명하면서 더욱 역동성을 띠게 된다. 서정적 형식으로부터 서사적 형식을 거쳐 극적 형식을 지향하는 이 소설의 서술기법도 Stephen의 예술형식에 관한 이론을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이 예술론의 핵심인 몰개성이론은 앞서 언급했듯이 Stephen의 소외의식을 객관화시킴으로써 그것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따라서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제시된 미학이론은 이 소설의 모든 기법 및 전략과 마찬가지로 소외의 주제를 심미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Joyce의 예술적 목적에 수렴되는 것이다.

제 5 장의 결말부분은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종결부로서 제 1 장의 서두부분과 대응을 이루어 이 소설의 건축학적 환상구조를 완성한다. 이 결말부분에서는 지금까지 견지해온 3인칭 서술시점으로부터 일기 형식을 취한 1인칭 서술시점으로 급격히 전환된다. 이와 같은 서술시점의 갑작스런 전환은 화자를 텍스트로부터 제거시키고 미숙한 예술가의 초상을 창조하면서 성숙기에 접어드는 Stephen의 정체를 더욱 명백하게 밝히기 위한 Joyce의 의도적인 서술전략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Lanser 418).

26 *April* Mother is putting my new secondhand clothes in order. She prays now, she says, that I may learn in my own life and away from home and friends what the heart is and what it feels. Amen. So be it. Welcome, O life! I go to encounter for the millionth time the reality of experience and to forge in the smithy of my soul the uncreated conscience of my race.

27 *April* Old father, old artificer, stand me now and ever in good stead. (『젊은 예술가의 초상』 252-53)

Joyce는 여기에서 닫힌 결말이 아닌 열린 결말을 제시한다. Stephen, 아니 Joyce는 망명을 통해 ‘경험의 리얼리티’에 수없이 부딪치면서 자신의 상상력으로 ‘민족의 아직 창조되지 않은 양심’을 담은 새로운 예술작품을 버리게 될 것이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Stephen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잠재적 예술가임은 분명하다. 그가 Icarus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무의식적인 아이러니가 그것을 입증한다. 그러나 Joyce는 결코 미숙한 예술가가 아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Joyce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다양한 서술기법과 문학적 전략을 소외의 주제와 치밀하게 결합시켜 구조화된 소설미학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Joyce의 글쓰기가 이 결말부분에서 닫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 이어지는 『율리시즈』에서 새로운 글쓰기를 통해 또다른 소설미학을 창조하게 될 것이다.

### III

『율리시즈』에서 Joyce는 Stephen과 Bloom을 통해 사랑의 주제를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Molly의 육체로 씌어지는 마지막 에피소드에 이르러 최종적으로 그것을 포용하는 긍정의 주제를 제시함으로써, 이 작품의 육체적 시학을 창조한다. 이와 같은 『율리시즈』의 미학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Joyce는 서로 다른 문체와 다양한 서술기법으로 씌어지고 내용상으로도 서로 연

관성이 없어 보이는 18 개의 에피소드에 전체성을 부여하기 위해 작품의 구조적 형식에 대한 자의식적 성찰을 끊임없이 지속한다. Joyce는 『율리시즈』를 쓰는 동안 그것을 다시 읽고 고쳐 쓰는 반복적인 글쓰기를 통해 내용과 조화를 이루는 형식의 내적인 구조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그가 말하는 ‘새로운 리얼리즘’ (Power 53)의 미학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Joyce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마지막 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율리시즈』에서도 Stephen을 통해 자신의 예술적 입장을 정당화하는 Shakespeare 이론과 태생적 예술창조론을 제시하고 직접 작품에 적용하고 있다. “Scylla and Charybdis” 에피소드에서 전개되는 Shakespeare 이론에선 예술가의 초연함을 강조하고 있는 몰개성이론과는 정반대로 예술작품을 작가의 전기적 삶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간주한다.

Is it possible that that player Shakespeare, a ghost by absence, and in the vesture of buried Denmark, a ghost by death, speaking his own words to his own son's name (had Hamnet Shakespeare lived he would have been prince Hamlet's twin), is it possible, I want to know, or probable that he did not draw or foresee the logical conclusion of those premises: you are the dispossessed son: I am the murdered father: your mother is the guilty queen, Ann Shakespeare, born Hathaway? (『율리시즈』 155)

위와 같은 Stephen의 진술에 드러나는 Shakespeare 이론의 주된 논점을 요약하면, Shakespeare는 Ann Hathaway가 간음을 한 상황에서 Hamlet을 썼다는 것이다. Stephen은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Hamlet에서 실제로 강조되고 있는 쟁점을 변경하여 그것을 배신과 간음 및 찬탈에 관한 이야기로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Joyce는 실제로 그가 성장하고 예술적 감수성을 형성한 삶의 세계인 더블린의 환경으로부터 취한 소재들을 상상력을 통해 예술적으로 재형성함으로써, 통합된 미학적 형식과 구조를 갖춘 『율리시즈』를 비롯한 그의 소설들을 창조하고 있다.

“Oxen of the Sun” 에피소드에서 입증되는 태생적 예술창조론은 예술적 창조과정과 생물학적 탄생과정의 연관성에 의거한 것이다.

In woman's womb word is made flesh but in the spirit of the maker all flesh that passes becomes the word that shall not pass away. This is the postcreation. *Omnis caro ad te veniet.* (『율리시즈』 320)

역시 Stephen에 의해 제시되는 위 인용구절에서 “모든 육체는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라는 라틴어 부분은 신의 영역이 아닌 예술가의 영역을 예언하는 것으로 변용됨으로써, “Oxen of the Sun”에서 표명되는 Joyce의 새로운 예술론을 정당화한다. Joyce는 실제로 영국 산문문체의 역사적 진행과정과 태아의 태생적 발달단계가 일치하도록 이 에피소드의 구조적 틀을 짠으로써, 이 에피소드뿐만이 아니라 『율리시즈』 전체의 유기적 통일성을 구현하고자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의 육체 속에서 육화된 말로 씌어지는 『율리시즈』는 예술이란 실제의 삶을 짜넣기도 하고 풀기도 해야 한다는 이 예술론의 입장을 반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율리시즈』에서는 『더블린 사람들』과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보다 더욱 다양한 기법들과 문학적 전략이 활용되고 있다. Joyce는 기존의 기법들과 전략 이외에도 Homer의 신화적 대응을 비롯하여 예시, 병치 또는 삽입의 기법 등을 모자이크나 patchwork의 과정을 통해 『율리시즈』에 짜넣으면서 축적된 새로운 소재들과 결합시킴으로써 이 소설 특유의 미학적 형식주의를 완성한다. 『율리시즈』에서 이렇게 소재와 내용이 충실하게 융해된, 작품 전체의 구조적 통일성의 미학을 달성하기 위한 Joyce의 형식에 대한 관심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에피소드들은 “Lestrygonians,” “Wandering Rocks,” “Circe” 등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제 8 에피소드인 “Lestrygonians”는 끊임 없는 고쳐쓰기 과정을 통해 밀도있고 짜임새있는 미학적 구조를 창조하는 Joyce의 글쓰기의 양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에피소드는 Joyce의 설명대로 ‘인간육체의 서사시’인 『율리시즈』의 대표적인 에피소드로서 그가 사용하는 언어는 육체의

작용을 표현하기 위해 씌어진다 (Budgen 21). Joyce가 이 에피소드에서 언어의 배열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이와 같은 자신의 의도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인용구절은 문맥에 알맞도록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고 배열하고자 하는 Joyce의 글쓰기에 대한 자의식적 성찰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High voices. Sunwarm silk. Jingling harnesses. All for a woman, home and houses, silkwebs, silver, rich fruits spicy from Jaffa. Agendath Netaim. Wealth of the world.

A warm human plumpness settled down on his brain. His brain yielded. Perfume of embraces all him assailed. With hungered flesh obscurely, he mutely craved to adore.

Duke street. Here we are. Must eat. The Burton. Feel better then.

He turned Combridge's corner, still pursued. Jingling, hoofthuds. Perfumed bodies, warm, full. All kissed, yielded: in deep summer fields, tangled pressed grass, in trickling hallways of tenements, along sofas, creaking beds.

— Jack, love!

— Darling!

— Kiss me, Reggy!

— My boy!

— Love! (『율리시즈』 138)

Joyce는 Frank Budgen과의 유명한 일화에서 위 구절의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포옹의 향기가 그의 온몸을 공격했다. 이름 없는 굶주린 육체로 그는 묵묵히 사랑을 갈망했다.”는 두 문장을 완성하느라 하루종일 고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Budgen 19-20). 그런데 Joyce에게 제기된 문제는 적절한 단어의 선택이 아니라 그 단어들을 가장 완벽한 순서로 배열하는 것이었다. 3인칭 서술로 된 이 문장들의 적절성은 의식의 흐름과 대화의 단편이 뒤섞인 전체 문맥과 연관시켜 보면 곧 드러나게 된다. Homer의 유혹의 모티프

와 대응을 이루는 진열대의 여성의 속옷에 의해 순간적으로 자극받은 Bloom은 음식에 대한 공복감으로 인해 성에 대한 공복감을 더욱 강렬하게 느끼게 되는데, 이에 따라 단어의 리듬들도 연동적 파동을 일으키면서 점차적으로 빨라지고 있다. Joyce는 이와 같은 인상주의적 글쓰기를 통해 두 문장과 전후의 구절 전체를 단일한 하나의 장면으로 극화함으로써 통일된 효과를 극대화한다. 마치 드라마 공연을 위해 씌어진 것처럼 이 장면은 구문과 언어의 유동적인 흐름의 변화 속에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뒤엉키면서 독자를 다성적 읽기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다 (Parrinder 165).

제 10 에피소드인 “Wandering Rocks”는 소설의 구조상으로 볼 때도 중심에 위치하여 전후의 에피소드들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은 물론이고, 18 개의 에피소드들에 상응하는 19 개의 비네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율리시즈」의 축소판이라 할만 하다. 실제로 이 에피소드에는 이 소설에 나오는 거의 모든 작중인물들이 재등장하여 동일한 시간대에 Joyce에 의해 주도면밀하게 설계된 더블린의 미로 같은 지형적 공간을 방황하면서 화석화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부정적 이피퍼니의 순간들을 현시하고 있다. “Wandering Rocks”의 이와 같은 시공간적 기법은 파편화될 위험에 처해 있는 18 개의 에피소드들을 ‘일정한 틀이 없는 하나의 현대적 캔버스’ (Litz 167)에 담을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율리시즈」 전체의 미학적 통일성의 가능성을 열게 된다. 우리는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인물들과 사건, 그리고 지형적 세목들을 몽타주 기법을 통해 그려진 회화를 보는 것처럼 더블린 군상들의 마비의 실상을 한 눈에 조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소설의 미학적 구조를 완성하는 것은 독자의 몫이기도 하다. 우리는 병치 또는 삽입의 기법에 의해 “Wandering Rocks”라는 하나의 화폭 속에 묘사된 인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여러가지 악기로 조화된 통일성을 창출하는 오케스트라에서 울려나오는 화음을 듣는 것처럼 다시 들음으로써 그들의 총체적 삶의 양상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첫번째 비네트에 나오는 Connée 신부의 여로에서 병치의 기법이 사용되어 그의 삶의 부정적 양상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r Denis J Maginni, professor of dancing & c, in silk hat, slate frockcoat with silk facings, white kerchief tie, tight lavender trousers, canary gloves and pointed patent boots, walking with grave deportment most respectfully took the curbstone as he passed lady Maxwell at the corner of Dignam's court.

Was that not Mrs M'Guinness?

Mrs M'Guinness, stately, silverhaired, bowed to Father Conmee from the farther footpath along which she sailed. And Father Conmee smiled and saluted. How did she do?

A fine carriage she had. Like Mary, queen of Scots, something. And to think that she was a pawnbroker! Well, now! Such a ... What should he say? ... Such a queenly mien. (『율리시즈』 181)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Clongowes Wood College의 교장으로 등장했던 Conmee 신부는 『더블린 사람들』의 「자매들」에 나오는 Flynn 신부를 연상시키는 인물로서, “Wandering Rocks”에서 종교의 정신적 타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Maginni는 Dignam 광장을 지나가고 있고 신부는 Dignam의 유족을 위한 용무로 걷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Dignam을 통해 대응을 이루는데, 전자의 화려한 옷차림은 Mrs M'Guinness의 외양에 관심을 갖는 후자의 물질적 세속성을 뚜렷이 드러나게 한다. 위 인용구절에서 그 편린이 밝혀지는 이 에피소드의 특성은 Mikhail Bakhtin이 말하는 소설의 대화성 또는 다성성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Bakhtin은 Dostoevsky의 소설의 다성적 특징을 설명하면서, 다성적 문학이란 독립적이고 서로 병합되지 않는 다양한 목소리들과 의식, 진실로 다성적인 매우 정당한 목소리들을 특징으로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6). 더군다나 “Wandering Rocks” 에피소드는 작품 자체내의 언어와 목소리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더블린 사람들』이라는 작품 밖의 텍스트의 그것을 반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Joyce 소설의 상호 텍스트성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율리시즈』에 유기적 통일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글쓰기에 대한 Joyce

의 예술적 자의식은 제 15 에피소드인 “Circe”에서 절정에 도달한다. 다른 에피소드들에서 사용된, 『율리시즈』의 중심이 되는 거의 모든 주제 및 사건들과 다성적 언어들이 “Circe”라는 하나의 에피소드로 수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Joyce는 작품내의 상호 텍스트적 반복에 의해 전후의 에피소드들을 총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율리시즈』를 다시 읽는 통일성의 심미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에피소드는 드라마 형식으로 제시되어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Joyce와 마찬가지로 독자도 객관적 시각에서 『율리시즈』의 미학적 창조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인용구절에 드러나는 바와 같이 Bloom과 Stephen은 마치 Shakespeare가 자기 이미지 (self-image)를 그의 연극 속에 투영하는 것처럼, 드라마 형식을 취해 각자의 자기 이미지를 세계 속에 투영함으로써 (Riquelme 97), 그들의 동질적 본성을 객관화시키고 있다.

## LYNCH

(*point*) The mirror up to nature. (*he laughs*) Hu hu hu hu !

(*Stephen and Bloom gaze in the mirror. The face of William Shakespeare, beardless, appears there, rigid in facial paralysis, crowned by the reflection of the reindeer antlered hatrack in the hall.*)

## SHAKESPEARE

(*in dignified ventriloquy*) 'Tis the loud laugh bespeaks the vacant mind. (*to Bloom*) Thou thoughtest as how thou wastest invisible. Gaze. (*he crows with a black capon's laugh*) Iagogo! How my Old-fellow chokit his Thursdaymornun. Iagogogo! (『율리시즈』 463)

따라서 “Circe” 에피소드가 초현실주의적인 환각 속에 제시된다 하더라도 주마등과 같이 변하는 장면들을 통해 사실주의적인 이피퍼니를 인식하게 된다. Joyce는 이와같이 정교한 섞어짜기를 통해 Bloom과 Stephen의 환각을 결합시킴으로써, 서로 타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의 삶을 또다른 삶으로 변형시키는 양자의 하루의 경험들을 극적 형식을 취한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제 18 에피소드인 “Penelope”는 『율리시즈』의 육체의 시학을 완결하는 에피소드로서 이 소설의 두말할 나위 없는 중심이다. 이 에피소드는 구두점과 서술이 없이 마치 강물처럼 흐르는 Molly의 길다란 내적 독백으로 켜어진다. 여성의 단어인 ‘yes’로 시작해서 ‘yes’로 끝나는 이 내적 독백은 나선형으로 꿈틀거리는 역동적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이 소설의 긍정의 주제를 뚜렷이 부각시킨다.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대지의 여신’ (Gilbert 430)인 Molly는 바로 자신의 육체로 켜어진 “Penelope”의 문체에 의해 짜여지고 풀려지면서 바로 이 긍정의 ‘yes’를 통해 Bloom과 Stephen을 그녀의 육체의 세계로 포용함으로써, 그들이 각자 『율리시즈』에서 지향하고 있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Joyce 자신의 언급처럼 (*Letters*, I 152) 『율리시즈』의 마지막 말인 이 ‘yes’는 그의 치밀한 예술적 전략에 의해 Molly에게 남겨진 것이다. Joyce의 추가적인 설명에 따르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이 마지막 말은 ‘영원으로 들어가는 Bloom의 통행권에 대한 필수불가결한 부서’ (*Selected Letters* 278)이다. Molly는 Howth 언덕에서의 회상장면에서 서정적 환희에 가득찬 Bloom과의 육체적 재결합을 노래하면서 활력이 넘치는 ‘yes’라는 말로 『율리시즈』를 끝맺음으로써, 그들의 사랑을 확인하고 삶을 수용하는 동시에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것이다.

O and the sea the sea crimson sometimes like fire and the glorious sunsets and the figtrees in the Alameda gardens yes and all the queer little streets and the pink and blue and yellow houses and the rosegardens and the jessamine and geraniums and cactuses and Gibraltar as a girl where I was

a Flower of the mountain yes when I put the rose in my hair  
like the Andalusian girls used or shall I wear a red yes and  
how he kissed me under the Moorish wall and I thought well  
as well him as another and then I asked him with my eyes  
to ask again yes and then he asked me would I yes to say  
yes my mountain flower and first I put my arms around him  
yes and drew him down to me so he could feel my breasts  
all perfume yes and his heart was going like mad and yes I  
said yes I will Yes. (『율리시즈』 643-44)

‘야산의 꽃’인 Molly의 생명에 대한 ‘yes’는 바로 Nietzsche적인 긍정으로  
서 생명에 내재하는 ‘yes’와 다를 바 없다 (Valente 89). 여성의 말인 ‘yes’는  
순종을 암시함으로써 수태와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의 문을 열고 인간  
의 존재에 대한 궁극적인 긍정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yes’는 이와같이 타자  
를 긍정함으로써 자아를 성취하는 말이다. 자신의 육체 안에 ‘yes’를 소유하  
는 Molly는 Bloom과 Stephen을 개별화함으로써, Joyce가 그들을 불후하게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Joyce의 소설미학이 『율리시즈』를 끝맺는 ‘yes’로서 완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율리시즈』의 존재론적 양식을 긍정하는 ‘yes’는 그것  
을 패러디하는 『피네건의 경야』(Finnegans Wake)에서 ‘Oyes’의 반복인  
“Oyes! Oyeses! Oyesesyesses!” (『피네건의 경야』 604)로 고쳐 씌어진다.  
이 ‘Oyes’ 역시 ‘yes’와 마찬가지로 타자의 목소리로서 법과 질서의 목소리  
이다. Joyce는 『피네건의 경야』에서 『율리시즈』의 긍정을 재긍정함으로  
써, 자신의 모든 작품에 심미적 질서를 부여하는 동시에 그 역시 Bloom과  
마찬가지로 영원으로 들어가 불멸의 예술가가 되는 것이다.

#### IV

Joyce의 소설미학은 그의 작품들이 보여주는 상호 텍스트성에 의해 그것

의 정수가 밝혀진다. Joyce는 『율리시즈』를 비롯한 그의 작품들에서 다른 작가의 작품들을 상호 텍스트로 삼기도 하지만 자신의 작품들을 상호 텍스트로 삼는 독특한 전략을 구사한다. 개인적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불리는 후자의 전략을 통해서 Joyce의 소설미학은 개별적인 작품에만 한정되지 않고 서로를 향해 열려 있는 작품들 전체로까지 확장이 된다. 예를 들어 Joyce는 그의 소설들을 창작하면서 이미 씌어진 자신의 작품들로부터 주제와 작중 인물을 빌려온다. 『더블린 사람들』의 마비의 주제는 Joyce의 모든 작품들을 관류하는 주제이다. 특히 『율리시즈』의 “Wandering Rocks” 에피소드는 이피퍼니의 순간을 통해서 마비의 주제를 현시할 뿐만 아니라 ‘주도면밀한 천박한 문체’로 씌어진다는 점에서 『더블린 사람들』과 아주 흡사하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소외의 주제 및 정신적 부성 추구의 주제도 『율리시즈』에 이르러 완결이 된다. 『더블린 사람들』의 「죽은 사람들」에서 Gabriel이 보여주는 삶에 대한 자아인식은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의 예술가적 자아인식을 향해 열리기도 한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주인공인 Stephen은 『율리시즈』에 다시 등장하여 진정한 예술가로 성장하게 된다. 『더블린 사람들』의 「자매들」과 「애러비」에 나오는 소년도 Stephen을 연상시키는 인물이다. Gabriel은 또한 오쟁이진 남편이라는 점에서 『율리시즈』의 Bloom과 유사하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Clongowes Wood College의 교장으로 등장하는 Conmee 신부는 『율리시즈』에 재등장하는 인물로서 더블린의 종교적 타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더블린 사람들』의 「자매들」에 나오는 Flynn 신부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피네건의 경야』의 Shem 역시 미숙한 예술가라는 점에서 Stephen을 반향하는 인물이다. 심지어 『율리시즈』의 Bloom과 Molly는 각자 모든 인간을 대표하고 여성의 생명력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피네건의 경야』의 Humphrey Chimpden Earwicher와 Anna Livia Plurabelle라는 인물들과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Joyce는 그의 작품들 간의 이와 같은 상호 텍스트적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더블린 사람들』, 『젊은 예술가의 초상』, 『율리시즈』, 『피네건의 경야』 등을 미학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책으로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Joyce는 예술의 심미성과 자기 목적성을 염두에 두고 그의 주요 작품들 속에 모더니즘의 미학적 형식주의를 구현함으로써, 심미적 질서를 창조하는 내적인 통일성을 달성하고자 글쓰기에 대한 자의식적 성찰을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다. Joyce의 이와 같은 창작 태도는 Georg Lukács의 지적처럼 현실을 외면한 채 지나치게 형식과 기교에만 몰두함으로써 예술을 풍요롭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소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에 부딪치기도 한다 (45-46). 그러나 Joyce는 더블린의 공허하고 누추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는 오히려 더블린의 마비상태를 미학적으로 재형성함으로써, 그것을 제어하고 완화하는 동시에 그것에 형체와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예술적 상상력을 통해 더블린에 실재하는 인물들과 지형적 세목들을 생생하게 재현하는 과정은 마비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초극하고자 하는 투쟁과 다를 바 없다. 결론적으로 Joyce는 더블린의 삶의 총체적 양상을 새로운 형식의 리얼리즘이란 그릇에 담음으로써 그것을 불후한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고 자기 자신도 불멸의 예술가가 되는 것이다.

〈대림전문대〉

## 인용 문헌

- Bakhtin, Mikhail. *The Dialogic Imagination: Four Essays*. ed. Caryl Emerson, trans. Caryl Emerson and Michael Holoquist.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81.
- Bowen, Zack. "Joyce and the Epiphany Concept: New Approach." *Journal of Modern Literature*, Vol. 9, No.1 (1981/82), 103-14.
- Budgen, Frank. *James Joyce and the Marking of 'Ulysses.'* Bloomington & Lond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60.
- Füger, Wilhelm. "Crosslocution in Dubliners." *James Joyce Quarterly*, Vol. 27, No. 1 (Fall 1989), 87-99.
- Gilbert, Stuart. *James Joyce's Ulysses*. New York: Vintage Books, 1958.
- Joyce, James. *The Critical Writings of James Joyce*. ed. Ellsworth Mason and Richard Ellmann. New York: The Viking Press, 1959.
- , *Dubliners: Text, Criticism and Notes*. ed. Robert Scholes and A. Walton Litz.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9.
- , *Finnegans Wake*. London: Faber & Faber, 1975.
- , *Letters of James Joyce*. Vol. I, ed. Stuart Gilbert. New York: The Viking Press, 1957. Vols II and III, ed. Richard Ellmann.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6.
- ,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Text, Criticism and Notes*. ed. Chester G. Anderson.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8.
- , *Stephen Hero*, ed. Theodore Spencer. London: Fletcher & Son, 1975.
- , *Selected Letters of James Joyce*. ed. Richard Ellmann.

- London: Faber & Faber, 1975.
- , *Ulysses: The Corrected Text*. eds. Hans Walter Gabler et al. Harmondsworth : Penguin Books, 1986.
- Kenner, Hugh. "The Portrait in Perspective." *Joyce: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William M. Chace, 29-49.
- Lanser, Susan S. "Stephen's Diary : The Hero Unveiled." *James Joyce Quarterly*, Vol. 16, No.4 (Summer, 1979), 411-18.
- Litz, A. Walton. "The Author in Ulysses: The Zurich Chapters." *James Joyce: A New Language*. ed. F. G. Tortosa, Seville: University of Seville Press, 1982.
- Lukács, Georg. *Realism in Our Time: Literature and the Class Struggle*. New York: Harper Torchbooks, 1964.
- Parrinder, Patrick. *James Joyce*. Cambridge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 Powers, Arthur. *Conversations with Joyce*. ed. Clive Hart. New York: Harper & Row, 1974.
- Riquelme, J.P. "Enjoying Invisibility: My Myth of Joyce's Impersonal Narrator." *The Seventh of Joyce*. ed. Bernard Benstock. Bloomington: University of Indiana Press, 1982.
- Valente, Joseph. "Beyond Truth and Freedom: the New Faith of Joyce and Nietzsche." *James Joyce Quarterly*, Vol.25, No.1 (Fall 1987), 87-103.
- Wright, Richard G. *Characters of Joyce*. London & New York: Gill and Machmillan, 1983.